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19

회차 , 새로운 탈출,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9, 새로운 탈출,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탈출 모티브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탈출에서 그의 백성으로 구출하고 구원하신 자들을 정의하거나 식별하는 특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탈출의 중요성이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움직여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백성의 구원을 첫 번째 탈출을 본떠 새로운 탈출로 생각하게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저자들이, 특히 복음서에서 탈출과 새로운 탈출의 모티프를 어떻게 묘사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새로운 탈출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성취한 것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히 마태복음을 살펴보았고, 마가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본문들에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루가 복음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예를 살펴보겠지만, 루가 복음과 루가 4장 16절 이하, 예수의 사역이 시작될 때인 16절부터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라난 나사렛으로 가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는 일어나서 읽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건네졌다. 그는 그것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았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니라.

그는 나를 보내어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다른 이사야서에서 본 탈출기의 명확한 언어나 단어 중 일부는 여기에 없지만 동시에, 포로들에게 해방을 가져오는 예수의 언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의 언어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가 가져오는 이 구원을 새로운 탈출기 맥락에 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특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 가장 흔한 모티브는 새로운 탈출기입니다.

종종 신약 저자들이 구약 본문의 단편이나 인용문을 언급할 때, 그 본문은 인용문의 더 넓은 맥락을 함께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61장을 이사야가 회복에 대해 더 넓은 개념으로 묘사한 새로운 탈출에 비추어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신 것은 이사야의 새로운 탈출 모티브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조차도 예수께서 새로운 탈출을 가져오신 것으로 묘사한다.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방식, 즉 하늘에서 그의 백성에게 보내신 방식으로 예시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또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시작하는 요한의 말씀에서,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예수를 호수 건너편에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인의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준 자는 모세가 아니요, 하늘에서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선생님, 그들은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이 텍스트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만나와 지금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참된 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암묵적으로, 제 생각에, 출애굽 모티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된 후 광야를 여행할 때 첫 번째 출애굽에서 만나로 그의 백성을 돌보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만나에 예시된 삶의 존재인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또한, 어떤 특정 본문도 언급하지 않고 주님의 만찬을 언급하지만, 공관복음서는 예수께서 죽음, 재판, 죽음 직전에 기념하신 유월절과 일치합니다. 복음서의 끝에서 복음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고 시작한 만찬을 나누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흥미롭게 도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만찬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가능하다면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새 언약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주님의 만찬, 친교 식사 또는 성찬례 또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의 참여는 유월절 식사가 첫 번째 탈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행위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주님의 만찬조차도 새로운 탈출 모티브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원래의 탈출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성취로서 새로운 탈출 구원을 제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서 저자들은 어느 정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예언적 본문, 특히 이사야가 약속한 새로운 출애굽 구원을 성취한 것으로 더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데이비드 파웰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고도 이사야서 42-55장이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파웰은 리키 왓츠가 마가복음에서 한 것처럼, 데이비드 파웰은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사야에 대한 수많은 암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이 출애굽기 모티프를 더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사야의 출애굽기 모티프를 40-55장에서 전개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출애굽기 모티브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데이비드 파웰은 다시 한 번, 그것이 주요 모티브인지, 적어도 지배적인 모티브 중 하나인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구원과 초기 교회의 움직임, 복음의 성장과 확산이 이사야 40장과 그 이하의 새로운 출애굽기의 성취인 새로운 출애굽으로 구상된 방식에 대해 논쟁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조차도 여러 곳에서 이사야서의 출애굽기 언어와 출애굽기 모티브와 공명하는 듯합니다. 이제 바울 문헌과 바울 본문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구원을 노예 상태에서의 구속, 즉 죄와 그 죄의 힘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맥락에서 그렇게 하며, 그는 출애굽기 모티프의 맥락 내에서 그렇게 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의 정경 순서를 따라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수많은 본문이 있겠지만, 로마서 8장, 그리고 저는 처음 몇 구절을 읽고 로마서 8장의 12~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그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NT 라이트는 출애굽기 전체와 출애굽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6~8장 전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8장에서 많은 새로운 출애굽기 언어를 찾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육신으로 인해 율법이 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속죄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의무가 있으나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인도되는 출애굽 모티브의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됩니다. 15절: 여러분이 받은 영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 속에 살도록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영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주제

외에도 노예 상태와 아들 또는 자녀 사이의 대조적인 언어에 유의하십시오 .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이집트의 속박을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속박되고 노예 상태에 있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은 노예이지만, 이제 그들은 구출되어 완전한 아들 또는 완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출애굽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들 관계 언어를 다시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서 구출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서 발견되는 이 움직임은 자녀에게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것으로, 아마도 출애굽기 언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도 다시 정경 순서대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구속의 언어, 노예 상태에서의 구속, 아들이 되는 언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 이미지나 노예 상태에서 구출된 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아들로 입양되는 출애굽기 언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미성년일 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초보적인 영적 세력 아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외국의 압제적인 나라에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종살이를 하고, 사탄에 종살이를 하고, 악에 종살이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악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 여러분이 미성년일 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초보적인 영적 세력 아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여 우리로 아들의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을 닮고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너희가 그의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으니 곧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니라.

그리고 당신이 그의 자녀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이 언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상태에서 구출하셔서 그의 아들, 입양된 아들로써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상속 언어는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땅의 상속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또 다른 본문인 골로새서 1장은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이지만, 새로운 출애굽 주제와 관련하여 다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라. 빛의 나라에서 그의 성도들과 거룩한 사람들의 기업을 나누도록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종류의 구약 성경 언어와 공명한다. 13절, 그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한 번 더, 한 권세에서 건져내어 다른 권세로 옮겨졌다는 이 언어는 출애굽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며, 억압에서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행위로 묘사함으로써, 나는 그것이 또한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출애굽과 분명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각주로서, 만약 내 의견으로, 또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 의견으로는 사실이지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거나 싸우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 내의 운동이라면, 저자가 지금 그의 독자, 이방인 독자들이 이미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했으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싸우고 있는 가르침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 운동에 끌리거나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겪었고, 압제, 어둠의 왕국에서 구출되었으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이것은 그때 구원의 행위로 묘사되고, 그것은 죄 아래서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또는 해방입니다.

또한 다른 구원 언어를 이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주제를 논의할 때 구원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구원 언어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적어도 암묵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의 덕분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설명하는데, 7절에서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으니 곧 죄 사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성령을 언급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인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로마서 3장, 특히 24절에서 구속에 대한 언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언어는 또한 탈출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탈출은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해방하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의 핵심은 바로 해방 또는 구매, 해방, 해방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구원의 신학적 주제를 논의할 때 그 언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서 다른 가능한 것, 둘 중 하나, 제 생각에는 꽤 명확하지만, 출애굽기와 다른 가능한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뒤로 돌아가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량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발효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옛 누룩을 제거하여 당신이 참으로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유월절 양은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희생양의 맥락에서 유월절 양으로 여겨집니다. 그저 어떤 희생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는 그것을 유월절 양과 유월절 희생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탈출을 시작하며, 예수님 자신의 죽음은 유월절 양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또 다른 본문도 아마도 새로운 탈출을 가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몇 본문이 그 맥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 걸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에서 나오는 본문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백성 가운데 거처나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기 26장과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거처를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탈출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그들 가운데 그의 거처를 세우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것, 곧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17절. 17절,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사야서 52장에서 이것은 이사야 52장 11절의 일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가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서 나와서 정결하라. 주의 집의 물건을 나르는 자들아, 그러나 서둘러 떠나거나 가지 말지니라.

이것은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사야 52:11을 인용한 것이 새로운, 새로운 탈출의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주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서둘러 떠나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방식과 같이 말입니다. 이는 주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엑소더스 언어가 있을 것이다. 52장 1절로 돌아가라: 깨어라, 깨어라, 시온아, 힘을 입어라, 영광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할레받지 아니하고 더럽혀진 자는 네게 들어오지 못하리라. 옷을 벗어던지고, 일어나서, 목에 매인 사슬에서 벗어나라.

시온의 딸이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속박에서 유배로의 해방을 의미하는 언어이지만, 4절은 주권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 백성은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아시리아가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새로운 탈출에 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바울은, 저는 그가 무차별적으로 구약 성경 본문의 조각을 낚아채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사야 52장의 인용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고, 그들이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땅으로 데려오는 전체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떠나면서, 유배의 땅을 떠나면서, 그들은 더러운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서 거기서 나가서 다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언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은 분명히 그 맥락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탈출기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다른 구약성경 본문과 함께 다시 한 번 그의 백성에 대한 순수함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수해야 할 필요성은 그들이 경험한 이

새로운 탈출기의 일부로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깨끗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탈출의 목표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37장을 합친 본문을 인용했는데, 이 두 본문은 모두 탈출 모티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암묵적으로, 아마도 암묵적으로 탈출 언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일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시 한 번 다루었으므로 읽거나 그 일부를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서로 적대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가 된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주셨고, 당신은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 즉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교회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바울이 회복의 맥락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거듭해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더 넓은 맥락에서 회복의 개념이 새로운 출애굽기, 40~55장, 실제로는 40~66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묘사하는 주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사야의 회복 약속의 성취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본문들을 인용하는데, 궁극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에베소서 2:11~22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회복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사야의 회복에 대한 기대의 성취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2장 1~10절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에서 집중하는 구절에서, 바울이 독자들을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받거나 구출된 자들로서 언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이라는 주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 7절과 14절에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구출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2장 1절,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 공중의 왕국의 통치자, 영을 따랐습니다.

이제, 일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향, 범죄, 허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그의 큰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그의 은혜의 비할 데 없는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구원과 구출을 발견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인간성으로 회복시킵니다. 출애굽 모티브를 따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2장에서 성전을 언급하면서 절정에 달하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는 거룩한 거처, 성소,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대한 암시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출애굽기의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문헌에 대한 결론으로,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고 언급할 수 있는 다른 텍스트도 있지만, 바울 문헌에 대한 결론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교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기를 겪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로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일관되게 예수를 새로운 탈출을 성취하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탈출은 첫 번째 탈출의 궁극적인 의도를 가져오지만 예언적 본문에서 예상한 새로운 탈출의 성취와 완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가져오고 성취하는 새로운 탈출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약에서 예상한 탈출 구원인 새로운 탈출을 완성합니다. 이제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서 지적할 수 있는 다른 예언적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 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히브리서 본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히브리서 3장과 4장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땅의 맥락에서 살펴보았고, 언약의 맥락에서, 아마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저자는 예수의 구원, 새 언약 백성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에 대한 더 광범위한 출애굽기 기록, 약속의 땅까지 광야를 여행한 것,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 것,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백성에 대한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독자들에게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안식과 미래에 들어갈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식과 비교하거나 약속된 안식에 대한 성취로 보는 것은 출애굽 모티브를 불러일으키는 듯하여 우리의 안식, 안식,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들어가는 구원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공되고 공급되는 안식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빛 속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다시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전적으로가 아니라 주로 출애굽 모티브가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 뒤에 있는 듯합니다.

예수 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 거처를 성취하고, 예수가 구약의 희생 제도를 대체하고, 예수가 그의 백성을 위해 여호수아가 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제공하고, 예수가 모세보다 더 큰 분이며,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제공한다는 개념.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출애굽기의 맥락 안에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예수의 공급 덕분에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희생을 성취한 십자가에서의 그의 희생적 죽음은 모두 적어도 우리의 구원이 새로운 출애굽기라는 모티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도 새로운 탈출기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문헌 외에도 신약성경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이 있겠지만, 저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서 논의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인데, 탈출기 모티브는 실제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책 전반에 걸쳐 전개된 명확한 모티브입니다.

계시록을 살펴보기 전에 말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원래의 출애굽기와 원래의 출애굽기의 의도와 예언적인 새로운 출애굽기는 모두 신약에서 성취되지만, 특히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종말론의 계획에 따라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복음서와 바울 문헌, 그리고 어느 정도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많은 본문은 예수께서 이미 유배를 종식시키셨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는 새로운 출애굽기 구원을 가져왔고, 우리는 복음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서신 문헌에서 새로운 출애굽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구원은 새로운 출애굽기라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도 새로운 탈출 구원의 이미-차원이 여전히 일부 있지만,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주로 탈출 모티브의 아직 또는 미래의 정점을 예상합니다. 우리는 또한 계시록의 저자가 이집트에서의 원래 탈출과 유사점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탈출에 대한 암시, 원래 탈출 기록,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다른 유대 문학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제 생각에 이사야서에서 새로운 탈출 언어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몇 군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시작점은 계시록 1장 5절과 6절, 계시록 1장, 5절, 6절, 그리고 종종, 종종 본문의 맨 처음, 신약 성경 책의 맨 처음은 종종 책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항상은 아니고, 때로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나중에

모티브를 소개하지만, 종종 책의 시작 부분에서 저자가 책의 미래 전개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핵심 모티브를 소개합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는 충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이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섬기게 하신 분,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섬기게 하신 분, 그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이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거나 구속된다는 명확한 언급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분명한 출애굽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자유는 이번에는 신약과 일치하며, 자유와 해방은 반드시 외국의 통치자나 압제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거나 구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마도 유월절 양 모티브를 떠올리며,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것을 확고히 하는 것은 6절이며,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며,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전 출애굽기 19장에서 그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그의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장, 5장, 6장이 이미 출애굽 모티브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구출되고 해방되고 구속되어 제사장 왕국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제사장 왕국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즉 탈출, 새로운 탈출 구원을 가져오신 일을 이미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는 이사야의 새로운 탈출 모티브를 암시하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새로운 탈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고, 제사장 왕국이 되는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저자가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나팔과 황소 심판의 형태로 원래의 출애굽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일 때, 출애굽 모티브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의 중앙에 있는 것 중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지배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일곱 재앙의 삼중 순환입니다.

일곱 인장으로 시작해서, 여섯 장에서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여덟, 아홉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여섯 장에서 일곱 황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의 삼중 순환, 일곱 재앙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팔과 황소 시퀀스를 주의 깊게 읽으면, 생각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출애굽 모티프가 전개되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읽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출애굽 재앙의 맥락에서 읽지 않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읽어보거나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섹션이나 장을 전부 읽고 싶지는 않지만, 몇 가지 섹션을 읽어보거나 여러분이 연관성을 알 수 있을 만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햇불처럼 타오르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샘의 삼분의 일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쓰라려서 그것을 마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낮의 3분의 1은 빛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흥미롭게도 다섯 번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 때의 재앙입니다. 나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심연을 열었을 때, 거대한,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올라왔다. 태양과 하늘은 연기로 어두워졌고, 연기에서 메뚜기가 나왔다. 3절에서 저자는 그 메뚜기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럼, 재앙과의 연관성을 보시나요? 이 중 대부분은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 적어도 하루 중 일부가 어두워진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건초를 쏟아내는 재앙 때문이며, 첫 번째 나팔에서 언급된 우박에 대한 언급은 모두 출애굽기의 재앙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16장을 읽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쏟아내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갔는데, 이것은 16장 2절입니다. 그는 그릇을 쏟아 부었고 흉측한 상처가 났고 짐승의 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릇을 쏟아 바다에 두었고, 그것이 피와 같이 변했거나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강과 물샘에 부었더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해에 부었더니,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열로 타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그릇을 부었고, 왕국은 파라오의 왕국처럼 어둠 속으로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혀를 갈아먹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그릇을 부었습니다.

그 물은 땅의 왕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말라 버렸다. 그리고 나는 개구리처럼 생긴 세 명의 더러운 영을 보았다. 너무나 분명해서, 나는 거기서 멈출 것이다.

분명히 저자는 8장과 9장에서 나팔과 함께, 그리고 16장에서 황소와 함께 이 마지막 두 주기의 재앙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었던 탈출기 재앙의 방식에 따라 인류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 목적은 이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고, 그것이 제 목적이 아닙니다.

제 의도는 단순히 이것들이 계시록에서 엑소더스 모티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결이 하나님이 억압적인 사악한 사람들, 억압적인 사악한 국가 통치자인 이집트에게 심판을 쏟아 부은 다음,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여 그들의 구원과 상속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심판, 그의 엑소더스와 같은 심판과 재앙을 악하고 억압적인 국가 통치자, 이번에는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의 백성을 엑소더스로 구출하고 그들의 상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와 서곡으로서, 저는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탈출기 이야기는 계시록의 계시록 개념과 구원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저자가 탈출기 모티브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의 그들의 상황은 이집트와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집트에서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오실 엑소더스 유형의 구출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져올 재앙 엑소더스 재앙과 같은 심판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는 또 다른 사악한 나라, 로마 제국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억압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는 모든 악하고 억압적인 나라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 그의 백성을 구속하여 제사장 왕국이 되고 궁극적으로 땅을 상속하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한 서곡인 이 출애굽기 유형의 재앙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방금 본 16장의 대담한 심판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재앙을 주의 깊게 모델로 삼았습니다. 바로 직전인 15장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여덟째, 아홉째, 열여섯째는 재앙의 모든 유사점, 어둠, 우박, 물이 피로 변함, 날이나 왕국이 어둠 속에 있음, 메뚜기, 개구리, 상처, 출애굽기와 모든 종류의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장과 출애굽기를 모델로 삼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나오기 전에, 15장부터 시작해서 15장을 준비하면서, 하늘에서 또 다른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가 재앙을 꺼내 쏟아내기 전에, 그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로 빛나는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바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형상을 한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그들이 준 하프를 잡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주 하나님이며, 당신의 행위는 크고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민족의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리이다. 당신만이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 경배하리이다.

당신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 노래는 단어적으로 그다지 비슷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 모세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고 분명한 그림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 옆에 서 있는데, 그는 바다를 유리 바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고, 이제 그들은 바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가 불러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5장에서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전에 우리는 전염병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들이 바다에서 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를 곳에서 구원하실 준비를 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압제적인 사악한 제국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21장에서, 그러면 새로운 출애굽기 모티브인 21장 3절에 대한 출애굽기 모티브의 절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새 창조의 맥락에서 사기로 보았지만, 저는 이것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첫 번째 텍사스에서 상속받도록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번째 탈출에서 이끌어내어 땅을 상속받고, 땅에 정착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 맥락에서 새로운 탈출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십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압제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탈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상속지인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1, 21, 3에서, 여기 탈출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레위기 26장을 암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17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성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뒤로 돌아가서, 1절 끝에서 요한은 1절에서, 나는 새 하늘, 새 땅,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다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새로운 엑소더스 모티브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51장과 9장과 10장과 다른 몇 가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다를 말리실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악과 혼돈을 상징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 첫 번째 엑소더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벽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가 결국 같은 방식으로 땅에 도착하는 데 장벽이 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악과 혼돈을 상징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전,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짐승입니다. 13장, 바다는 짐승의 집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해로운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탈출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장 1절에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출애굽기 바다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모티프입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홍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악의 상징, 짐승의 집, 그들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는 장벽입니다.

이제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건너가서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또 다른 분명한 것은, 저는 출애굽기 본문과 새로운 출애굽기 본문이 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이사야서, 특히 42장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입니다. 이사야 42장, 저자가 다시 말하지만, 신이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사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42장은 새로운 창조의 맥락이고, 이사야 43장은 새로운 출애굽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자가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하여 맥락, 이 인용문, 이 환상, 또는 이사야 43장의 이 인용문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출애굽의 함축적 의미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의 새로운 출애굽 이미지의 맥락에서 새로운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출하실 탈출의 궁극적 성취로 봅니다. 동시에 그는 사악하고 억압적인 나라에 그의 심판, 탈출 재앙 심판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곁에 서서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유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홍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는 환난의 홍해가 사라져서 그들의 땅, 그들의 유업, 새로운 창조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탈출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모든 종류의 탈출 언어와 공명하므로, 계시록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탈출 또는 새로운 탈출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새로운 창조로 절정에 이르게 하실 새로운 탈출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9, 새로운 탈출, 2부입니다.